

# 2006년도 지상파 TV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분석

## Analysis of the 2006 Television Sports Programming Components

박보현  
서울대학교

Bo-Hyeon Park(turbo10@snu.ac.kr)

### 요약

본 연구는 2006년도 지상파 TV가 어떠한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BS 1TV, 2TV와 MBC TV, SBS TV의 2006년도 공개 편성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지상파 3사 모두 2006 독일월드컵 방송 편성에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가대항전 경기 위주의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방송사별로는 SBS TV가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KBS TV는 제일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2006년도 지상파 TV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에 나타난 특징은 독일월드컵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메가 이벤트와 인기 프로스포츠 종목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 중심어 : | 지상파 TV | 스포츠 프로그램 | 편성 |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which Sports Program the 2006 TV focused on. As a data, we have used the 2006 Television programming components of KBS 1TV, 2TV and MBC TV, SBS TV.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carried out classifying the sports hookup program. As a result, all three broadcasting companies placed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2006 World Cup and they have made national match the prime subject in the components of Television Programming. Looking at each broadcasting companies, SBS TV placed the highest importance in sports programming, on the other hand, KBS TV placed the least importance in sports programm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2006 Sports Television Programming components is that it was focused on the Mega Sports Event and the Pro-Sports of the World Cup and have worsen the alienation phenomena of unpopular sports.

■ keyword : | TV | Sports Programming | Components |

## I. 서론

### 1. 문제제기

지상파 방송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전파를 공유하는 방식의 방송을 의미한다[9].

이러한 방송에 있어서 편성이란 프로그램의 종류·내용·분량·배열에 관한 결정행위의 양식과 그 결과이다[2]. 이는 넓은 의미로 방송프로그램의 명칭·성격·분량·배치 등의 계획에서부터 제작·운영·송출까지를 포함하기도 하며, 좁은 의미로는 프로그램의 주제와

형식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 결정행위까지로 국한되기도 한다[14]. 그러나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방송에 있어 편성이란 한 프로그램 혹은 방송사 그리고 시청자에 의한 프로그램 수용의 성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15].

이러한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방송이념[13], 시장구조, 경영목표, 관련법규, 시청패턴과 피드백, 예산 및 제작여건[5]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심미선(2003)은 방송사의 이념, 경쟁적인 매체환경 그리고 수용자 조건 등이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방송사의 이념이 편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드는 대신 경쟁적인 시장구조 하에서 수용자의 존재, 즉 시청률이 편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였다.

스포츠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의 뉴스나 방송의 중계 및 보도 프로그램의 소재로 가능한 정도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스포츠는 방송의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위상으로 격상되었다[17].

스포츠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게 든다는 점[18], 그리고 드라마 등의 장르에 비해 시청률에 대한 사전 예측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1]이 편성에 있어 장점으로 꼽힌다.

Rowe(1999)에 따르면 방송사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두 가지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TV의 가장 중요한 장르가 된다. 첫째는 월경효과(spillover effect)로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도 올림픽 같은 미디어 이벤트를 중계하는 방송사의 채널을 먼저 살핀다는 것이며, 둘째는 약탈자 효과(spoiler effect)로서 국제적 미디어 이벤트의 경우 주관방송사가 된다는 것은 해당 이벤트를 자사의 스케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 방송사의 광고를 그만큼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프로그램이 이처럼 방송사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산업적 요소로써[16], TV와 스포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19]로 인식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990년 이후 한국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다른 장르(드라마, 보도, 오락 등)의 프로그램에 비해 '경제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11][12][1]. 조성식·박영옥(2001)은 스포츠 프로그램이 경제적이지 못한 이유로 국내 프로스포츠의 TV 중계권료 상승, 올림픽 및 월드컵의 높은 중계권료, 그리고 마라톤, 골프 등 제작비가 많이 드는 경기의 중계 편성, 그리고 90년대 이후 6%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는 낮은 시청률 등이 원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청률'과 '광고수익'을 제일 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어떠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편성의 대상이 될까? 조성식·박영옥(2001)은 TV 스포츠 프로그램의 편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시청률 측면에서 방송 편성 담당자가 고려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혹은 대회나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과 같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 그리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정도를 그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안민석(2005)은 모든 스포츠가 미디어와 공생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며 공생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메이저 스포츠'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빅4'(축구, 야구, 배구, 농구) 종목이 '메이저 스포츠'에 해당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정지규(2007)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도 지상파 TV가 편성한 국내 3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와 다른 미디어콘텐츠를 비교해봤을 때 편성비율과 시청률 면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이 모두 평균 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스포츠전문 케이블 채널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력 감소를 지목하였다.

이와 같이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높은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왔다.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방송 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편성에서 소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지상파 TV 방송편성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편성에 반영하였는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디어스포츠를 이해하고 보다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이끌어 나아가는 기초 자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2006년도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6년도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축구대회, 그리고 WBC대회 등의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집중되었던 해였다. 따라서 2006년도는 선행연구에서 지적인 지상파 TV의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대상이 현실에 대입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상파 TV가 2006년도 한 해 동안 어떠한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방송편성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나타난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는 미디어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2006년도 지상파 TV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KBS 1TV, KBS 2TV, MBC TV, SBS TV를 대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동안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프로그램 편성표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지상파 TV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과 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6년도 한 해 동안 지상파 3사 4개 채널(KBS 1TV, KBS 2TV, MBC TV, SBS TV)에 편성된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시간(방송횟수)을 중심으로 전체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대비 각각의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지상파 TV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2006년도 한 해 동안 지상파 TV가 편성한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은 총 37개 프로그램이 889회에 걸쳐 110,459분(1,840시간 59분)동안 편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6 독일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이 전체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30.46%(33,651분)로 가장 높은 비율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일월드컵의 영향으로 축구(15.32%)가 두 번째 높은 편성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아시안게임(12.05%), 동계올림픽(11.68%), 골프(7.72%), 야구(4.51%), 배구(3.09%), 농구(2.30%), WBC 대회(1.99%), 씨름(1.76%)순으로 편성 순위 10위안에 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37개 프로그램 중 1위부터 10까지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27개 프로그램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단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편성률을 나타냈다.

표 1. 지상파 TV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순위	프로그램	시간(횟수)	비율
1	독일월드컵	33,651(275)	30.46%
2	축구	16,917(140)	15.32%
3	아시안게임	13,309(92)	12.05%
4	동계올림픽	12,900(107)	11.68%
5	골프	8,531(68)	7.72%
6	야구	4,980(26)	4.51%
7	배구	3,415(29)	3.09%
8	농구	2,545(23)	2.30%
9	WBC 대회	2,201(11)	1.99%
10	씨름	1,940(19)	1.76%
11	장애인 스포츠	930(10)	0.84%
12	전국체전	895(7)	0.81%
13	유도	850(8)	0.77%
-	태권도	850(9)	0.77%
15	테니스	800(7)	0.72%
16	양궁	590(6)	0.53%
17	(단축)마라톤	565(4)	0.51%
18	비치발리볼	505(5)	0.46%
19	핸드볼	450(4)	0.41%
20	탁구	360(5)	0.33%
21	볼링	345(4)	0.31%
-	피겨 스케이트	345(3)	0.31%
23	사격	340(3)	0.31%
24	스키	250(3)	0.23%
25	사이클	240(2)	0.22%
-	종합격투기	240(3)	0.22%
27	수영	230(2)	0.21%
28	검도	220(2)	0.20%
-	레슬링	220(2)	0.20%

30	육상	170(1)	0.15%
31	당구	150(2)	0.14%
32	체조	140(2)	0.13%
33	배드민턴	110(1)	0.10%
34	모터스포츠	75(1)	0.07%
35	승마	70(1)	0.06%
-	에어로빅	70(1)	0.06%
37	롤러스케이트	60(1)	0.05%
합계		110,459(889)	100%

1.1 KBS 1TV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KBS 1TV의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은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배구, 축구, 씨름, 야구 등 20개 종목과 아시안게임, 독일월드컵, 동계올림픽, 전국체전 등 5개의 스포츠이벤트 등 총 25개를 중계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다.

표 2. KBS 1TV 편성 현황(방송시간 단위 - 분)

순위	프로그램	편성횟수	방송 시간
1	아시안게임	19	4,295(19.11%)
2	배구	24	2,835(12.62%)
3	독일월드컵	22	2,790(12.42%)
4	축구	17	1,970(8.77%)
5	씨름	19	1,940(8.63%)
6	동계올림픽	16	1,705(7.59%)
7	야구	8	1,380(6.14%)
8	전국체전	7	895(3.98%)
9	유도	8	850(3.78%)
10	태권도	7	710(3.16%)
11	(단축)마라톤	3	495(2.20%)
12	장애인 스포츠	4	440(1.96%)
13	핸드볼	3	330(1.47%)
14	볼링	3	265(1.18%)
15	레슬링	2	220(0.98%)
-	사격	2	220(0.98%)
17	육상	1	170(0.76%)
18	장애인올림픽	2	160(0.71%)
19	테니스	1	130(0.58%)
20	농구	1	120(0.53%)
21	배드민턴	1	110(0.49%)
-	수영	1	110(0.49%)
-	양궁	1	110(0.49%)
-	스키	1	110(0.49%)
-	검도	1	110(0.49%)
합계		174	22,470(100%)

이들 중 카타르 도하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이 19회 편성, 4,295분(71시간 35분) 방송으로 KBS 1TV 스포츠중계방송 전체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편성 비율(19.11%)을 나타냈다. 그러나 레슬링, 사격 등 11개 프로그램은

단 1~2회, 1%미만의 편성률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특히 육상(마라톤 제외)의 경우 KBS 2TV가 단 한 차례도 방송 편성을 하지 않은 가운데, 한 차례 국제대회가 170분(0.76%) 편성되었다.

1.2 KBS 2TV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KBS 2TV의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은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스포츠이벤트와 16개의 스포츠 종목 등 총 20개 프로그램을 189회 편성하였으며 총 방송시간은 25,325분(422시간 05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3. KBS 2TV 편성 현황(방송시간 단위 - 분)

순위	프로그램	편성횟수	방송 시간
1	독일월드컵	54	8,210(32.42%)
2	축구	36	4,590(18.12%)
3	동계올림픽	31	4,125(16.29%)
4	야구	9	1,840(7.27%)
5	아시안게임	14	1,510(5.96%)
6	골프	8	780(3.08%)
7	테니스	6	670(2.65%)
8	WBC 대회	3	645(2.55%)
9	농구	5	595(2.35%)
10	배구	5	580(2.29%)
11	양궁	4	400(1.58%)
12	비치발리볼	3	360(1.42%)
13	사이클	2	240(0.95%)
14	스키	2	140(0.55%)
-	체조	2	140(0.55%)
16	핸드볼	1	120(0.47%)
17	수영	1	120(0.47%)
-	사격	1	120(0.47%)
19	승마	1	70(0.28%)
-	장애인 스포츠	1	70(0.28%)
합계		189	25,325(100%)

이들 중 독일월드컵 중계방송이 54회 편성된 가운데 전체 스포츠 중계방송 중 32.42%인 8,210분(136시간 50분)동안 방송되었다. 그러나 중계방송의 대상에 있어서 아마추어 중심의 종목은 10개 종목에 한정되었으며 편성비율 또한 1%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MBC TV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MBC TV의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은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스포츠이벤트와 14개 종목 등 총 18개 프로그램을 255회 편성하였으며 총 방송시간

은 29,574분(492시간 54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독일월드컵 중계방송이 93회에 걸쳐 11,366분(189시간 26분)동안 편성되었다. 그러나 탁구(0.81%)를 비롯한 9개 프로그램은 1% 미만의 편성비율을 나타냈다.

표 4. MBC TV 편성 현황(방송시간 단위 - 분)

순위	프로그램	편성횟수	방송시간
1	독일월드컵	93	11,366(38.43%)
2	축구	55	6,447(21.80%)
3	아시안게임	31	3,304(11.17%)
4	동계올림픽	28	2,815(9.52%)
5	골프	12	1,371(4.64%)
6	농구	12	1,370(4.63%)
7	야구	5	1,045(3.53%)
8	WBC 대회	3	631(2.13%)
9	탁구	3	240(0.81%)
-	종합 격투기	3	240(0.81%)
11	당구	2	150(0.51%)
12	태권도	2	140(0.47%)
13	양궁	1	80(0.27%)
-	볼링	1	80(0.27%)
-	장애인 스포츠	1	80(0.27%)
16	모터스포츠	1	75(0.25%)
17	(단축)마라톤	1	70(0.24%)
-	에어로빅	1	70(0.24%)
합계		255	29,574(100%)

1.4 SBS TV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SBS TV의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은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스포츠이벤트와 10개 종목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271회, 33,090분(551시간 30분) 편성하였다. 이는 전체 방송편성 대비 7.45%(KBS 5.38%; MBC 6.66%)로 방송 3사 중 제일 높은 편성비율이다.

다른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이 전체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의 34.10%인 11,285분(188시간 05분)동안 편성되었으며, 타 방송사와 달리 골프가 18.92%(6,260분)의 동안 높은 비율로 편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SBS TV의 경우 다른 방송사에 비해 스포츠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제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스포츠이벤트와 인기 종목을 제외한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배려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SBS TV 편성 현황(방송시간 단위 - 분)

순위	프로그램	편성횟수	방송시간
1	독일월드컵	106	11,285(34.10%)
2	골프	48	6,260(18.92%)
3	동계올림픽	32	4,255(12.86%)
4	아시안게임	28	4,200(12.69%)
5	축구	32	3,910(11.82%)
6	WBC 대회	5	925(2.80%)
7	야구	4	715(2.16%)
8	농구	5	580(1.75%)
9	피겨 스케이팅	3	345(1.04%)
10	장애인 스포츠	2	180(0.54%)
11	비치발리볼	2	145(0.44%)
12	탁구	2	120(0.36%)
13	검도	1	110(0.33%)
14	롤러스케이팅	1	60(0.18%)
합계		271	33,090(100%)

2. 지상파 TV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특징

2006년도 지상파 TV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특징은 특정 성격의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에 편성된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편성성은 먼저 특정 기간에 국한되어서 개최되는 소수의 국제적 스포츠 메가 이벤트와 이를 포함한 국가 대항전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스포츠 메가 이벤트 중심의 편성

2006년 한 해 동안 편성된 월드컵 축구대회, 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리고 처음 개최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등의 스포츠 메가 이벤트 프로그램에 대한 지상파 TV의 편성 비율은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대비 56.1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방송 채널별로 살펴보면 SBS TV가 62.45%, MBC TV가 61.25%, KBS TV가 48.7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 개최되었던 4개의 스포츠 메가 이벤트 중 독일월드컵에 대한 편성비율이 29.34%로 제일 높게 나타난 가운데 도하아시안게임에 대한 편성이 12.23%로 동계올림픽보다 조금 높은 비율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스포츠 메가 이벤트 편성 비율(단위 - 분)

	KBS TV	MBC TV	SBS TV	합계
독일월드컵	11,000 (23.01%)	11,366 (38.43%)	11,285 (34.10%)	33,651 (29.34%)
동계올림픽	5,830 (12.20%)	2,815 (9.52%)	4,255 (12.86%)	12,900 (11.57%)
아시안게임	5,805 (12.15%)	3,304 (11.17%)	4,200 (12.69%)	13,309 (12.23%)
WBC 대회	645 (1.35%)	631 (2.13%)	925 (2.80%)	2,201 (1.87%)
합계	23,280 (48.71%)	18,116 (61.25%)	20,665 (62.45%)	62,061 (56.18%)

이와 같이 지상파 TV가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선호하는 현상은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지상파 TV의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 비율 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개최되는 짝수 해의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개최되지 않는 홀수 해의 편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지상파 TV가 스포츠 메가 이벤트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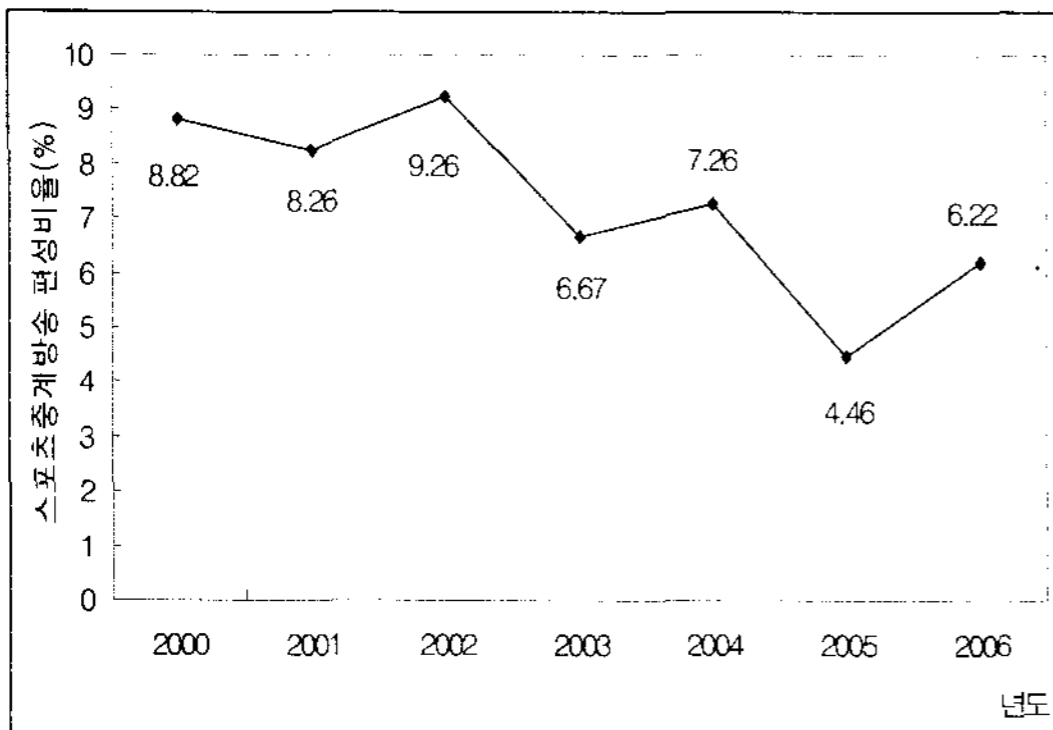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 변화\*

한편, 2006년도 스포츠 프로그램 중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동계·하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이 모두 한해에 개최된 해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인 7.26%보다 낮은 6.22%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는 2005년 12월부터 낮방송 시간 자율화로 인하여 전체 방송 시간이 연 87,600분(전체 시간 대비 6.25%) 확대된 점을 고려한

\* 자료출처: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안민석(2005), 2005년도는 정지규(2007)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다면, 2004년도 편성비율보다 하락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상파 TV의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SBS와 KBS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스포츠전문채널에 이어 2001년 MBC ESPN, 2005년 Xsports 등 스포츠전문 채널이 증가하면서 지상파 TV의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2.2 국가대항전 경기 중심의 편성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포함한 국가대항전 경기에 대한 편중성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경기중계방송 중 73.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7. 경기 유형별 TV 프로그램 편성현황 (단위 - 분)

구분	KBS TV	MBC TV	SBS TV	합계
국가대항전 경기	30,695 (64.22%)	22,827 (77.19%)	27,705 (83.73%)	81,227 (73.57%)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8,745 (18.30%)	5,506 (18.62%)	3,205 (9.69%)	17,456 (15.76%)
국내 아마추어 경기	8,355 (17.48%)	1,241 (4.20%)	2,180 (6.59%)	11,776 (10.66%)
합계	47,795 (100%)	29,574 (100%)	33,090 (100%)	110,459 (100%)

이는 국가대항전 경기에 대한 편성 비율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그리고 국내 아마추어 경기 편성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국가대항전 경기의 편성 비율이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편성 비율의 4.65배, 국내 아마추어 경기 편성 비율의 6.09배 높은 것이다. 또한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편성 비율이 국내 아마추어 경기 편성 비율보다 1.48배 높은 것과 비교했을 때, 지상파 TV의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국가대항전 경기 중계방송에 편중된 프로그램 편성을 실시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방송사별 국가대항전 경기의 편성 비율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국내 아마추어 경기의 편성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KBS TV의 경우 국가대항전 경기의

편성 비율이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편성 비율의 3.51배, 국내 아마추어 경기 편성 비율의 3.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BC TV의 경우는 국가대항전 경기 편성 비율이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편성 비율의 4.15배, 국내 아마추어 경기 편성 비율의 18.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BS TV가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편성 비율과 국내 아마추어 경기 편성 비율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1.04배), MBC TV의 경우 두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차이가 4.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 TV의 경우는 국가대항전 경기 편성 비율이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편성 비율의 7.08배, 국내 아마추어 경기 편성 비율의 10.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편성 비율과 국내 아마추어 경기 편성 비율의 차이는 1.47배로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국가대항전 위주의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아마추어 중심의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방송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규(2007)의 연구에 의하면 2005년도의 경우 핸드볼이 24회(23)\*, 탁구가 19회(4), 태권도와 육상이 17회(14/17), 유도가 15회(8), 볼링 13회(4) 등이 편성되었던 것에 비해, 2006년도는 핸드볼이 4회(4), 탁구가 5(0)회, 태권도 9회(7), 육상 1회(1), 유도 8회(8), 볼링이 4회(3) 편성되는데 그쳤다. 이는 프로그램 편성 횟수에 있어서 핸드볼이 전년도 대비 83%, 탁구가 74%, 태권도가 47%, 육상이 94%, 유도가 47%, 볼링이 69%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2006년도 지상파 TV가 어떠한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편성에 반영하였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2006년도 지상파 TV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방송사별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현황, 즉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편성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KBS 1TV와 SBS TV의 경우 방송사의 이념이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으로서 시청률에 제한 받지 않고 방송의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KBS 1TV의 경우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어 타 방송 채널보다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둔 SBS TV의 경우 KBS 1TV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 방송 채널 중 제일 적은 14개 프로그램만을 편성에 반영하였다. 또한 편성 프로그램 중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포함한 국가대항전 프로그램 편성에 제일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이는 SBS TV가 높은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을 집중 편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상업방송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KBS 2TV와 MBC TV의 경우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상업방송의 속성이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잘 나타나고 있다. KBS 2TV와 MBC TV는 SBS TV 보다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KBS 1TV보다 높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포함한 국가대항전 경기에 높은 편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KBS 2TV와 MBC TV를 공영방송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업방송으로 볼 것인가라는 논란[3]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민석(2005)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MBC TV의 경우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지상파 TV의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특징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국가대항전 경기가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성식·박영욱(2001)이 제시한 지상파 TV의 주요 방송 편성 대상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2006년도 지상파 TV가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시청률을 고려한 편성 전략을 사용

\* ()안 숫자는 KBS의 편성횟수를 나타냄.

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5년도 지상파 TV의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률 변화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006년도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률의 경우 '스포츠' 장르(시청률 3.4%)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장르의 시청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도가 동·하계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WBC대회 등 전통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집중된 해였기 때문에 시청자들로부터 다른 프로그램 장르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2006년도 지상파 TV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시청률 상위 20개 프로그램 중 14개 프로그램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포함한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6]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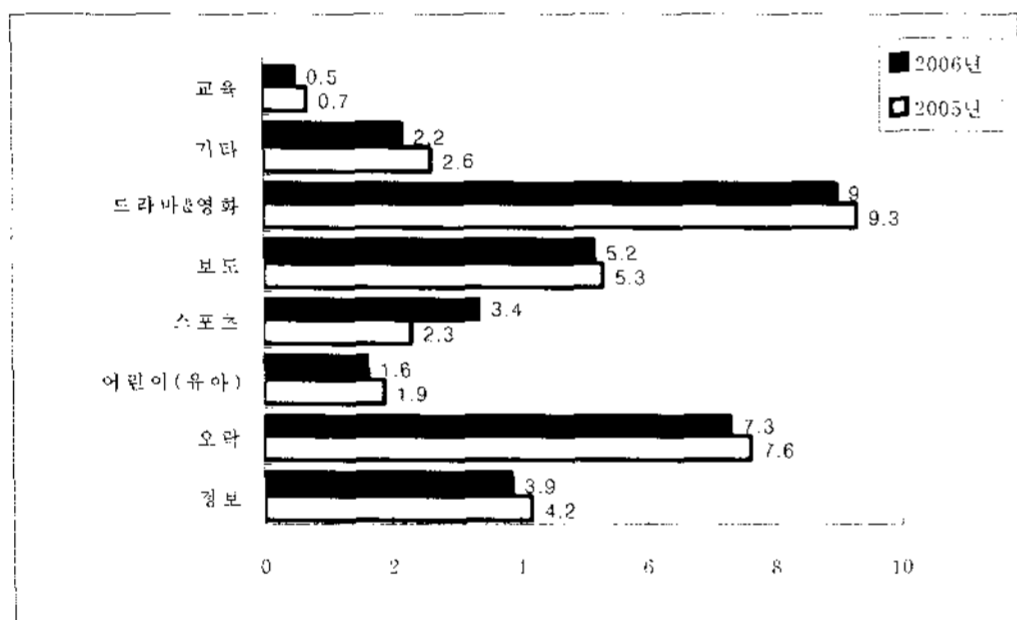


그림 2. 지상파 TV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률 변화[6]

그러나 시청률 상위 20위 프로그램 중 1위, 3위, 4위, 6위 프로그램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 경기가 아닌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였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국가대항전 경기라는 점 또한 높은 시청률을 담보하는 조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할 것이다.

이동연(1998)은 과거 국가대항전 경기는 대중들을 국가 앞에 복종하게 하는 중요한 민족적 프로젝트로서 작용하였다고 언급하였고, 이대회(2002)는 오늘날 미디어는 복종하는 대중들(시청률)을 매개로 광고주를 매혹시킴으로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자본은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스포츠의 정치화를 조장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을 스포츠로 유인하

고, 이를 통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오늘날 지상파 TV가 선호하는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이 왜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포함한 국가대항전 경기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상파 TV의 국가대항전 중심의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은 한국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 KBS와 MBC가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과 같은,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결론

본 연구는 2006년도 지상파 TV가 어떠한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편성에 반영하였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2006년도 지상파 TV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지상파 TV가 편성한 스포츠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분석 결과 지상파 TV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국가대항전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편중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적 목적을 방송이념으로 추구하는 SBS TV, 그리고 광고매출의 의존도가 높은 MBC TV, KBS 2TV 모두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광고방송을 하지 않는 KBS 1TV의 경우 스포츠 메가 이벤트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참고 문헌

- [1] 김원제, *미디어스포츠사회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2] 백성기, 이을규, 김수성, *방송기획·편성·제작의 이해*. 서울: 세종출판사, 2005.



[3] 심미선, “지상파방송의 편성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7권, 제4호, pp.37-75, 2003.

[4] 안민석, *스포츠 콘텐츠의 발전적 활용방안: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5,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2005.

[5] 유의선, *다 매체시대의 지상파방송 편성정책*, 방송문화진흥회, 다 매체시대의 방송편성정책, 서울: 한울, 1995.

[6] 이남철, *시청률 파고들기: 2006년 지상파 TV 시청률 분석*, 광고정보 310호, pp.124-129, 2007.

[7] 이대회, “세계화와 민족주의 공존: 스포츠의 세계화를 통한 민족주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2권, 제2호, pp.101-121, 2002.

[8] 이동연, *스포츠, 스펙터클, 그리고 지배 효과*, 스포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삼인, pp.182-196, 1998.

[9] 이철우, *우리나라 지상파TV 방송사 방송권역의 개편방안* 지리학연구, 경북대학교, 제26호, pp.15-30, 2007.

[10] 정지규, *미디어콘텐츠로서의 국내 프로스포츠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1] 정지현, *TV 스포츠 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2] 조성식, 박영옥, *TV 스포츠 프로그램의 편성과 편성 요인*,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4권, 2호, pp.539-554, 2001.

[13] 조성호, *텔레비전 방송사의 편성 전략 분석: 개편시 변경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990-1999*. 한국방송학회보, 제12권, 제1호, pp.387-428, 2000.

[14] 한진만, *한국텔레비전 방송연구*, 서울: 나남, 1995.

[15] J. Körbelin, 성공요인으로서의 방송편성, A. Shümchen, and H. Pauken,(ed.), 1999. Programmplanung: Konzepte und Strategien der Programmierung im deutschen Fernsehen. 한태학(2007), 방송프로그램 편성: 독일의 프로그래밍

전략과 방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6-20, 1999.

[16] R. W. McChesney, *Media made Sports: A History of Sports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 in Wenner, L. A. (ed.), *Media, Sports & Society*. California: sage Publish, pp.49-69, 1989.

[17] D. Rowe, *Sports, Culture and the Media: The Unruly Trin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9.

[18] B. Schultz, *Sports Broadcasting*. Fsocial Press, 2002.

[19] G. Whannel, *Sport and the Media*, in Coakley, J. Dunning, E.(ed.), *Handbook of Sports Studies*, London: sage, pp.291-308, 2000.

#### 저자 소개

박 보 현(Bo-Hyeon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 2006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 <관심분야> : 여가 및 스포츠사회학